



코로나 속 명절 연휴 극장가 승자는?

극장가

추석 명절 연휴를 맞아 극장가에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마블 히어로물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 박스오피스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화들이 1위 쟁탈전에 뛰어든다. 연휴를 앞둔 15일 동시 개봉한 두 영화는 일찌감치 흥행 대결 구도를 보이고 있다. 가족 관객들을 겨냥한 다채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도 빠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 견디지 않았지만 각기 다른 매력과 재미를 가진 작품들이 점쳐진 극장가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적’ ‘보이스’...국내 영화 1위 쟁탈전 한판승부
가족·어린이 관객 사로잡을 ‘애니메이션’ 3파전
마블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박스오피스 1위

감동 실화 ‘기적’

영화 ‘기적’은 오갈 수 있는 길은 기차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오늘부로 청와대에 딱 54번째 편지를 보낸 ‘준경’ (박정민)의 소원은 단 하나, 마을에 기차역이 생기는 것이다.

기차역은 어렵했다는 원칙주의 기관

사 아버지 ‘태운’ (이성민)의 반대에도 누나 ‘보경’ (이수경)과 마을에 남는 길 고집하며 왕복 5시간 통학길을 오가는 ‘준경’이다.

‘라희’ (임윤아)의 도움으로 ‘준경’은 설득력 있는 편지쓰기를 위한 맞춤법 수업, 유명세를 얻기 위한 장학퀴즈 테스트, 대통령배 수학경시대회 응시에 나서는데...

오로지 기차역을 짓기 위한 ‘준경’에게 기차가 서는 그날까지 포기란 없다.

영화 ‘기적’은 기차길은 있지만 기차역은 없는 마을이라는 신선한 설정으로 공감을 자작한다.

1988년 역명부터 대학실, 승강장까지 마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대한민국 최초 민자역 ‘양원역’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새롭게 창조한 이야기다.

언제 기차가 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다른 길이 없어 철로로 오갈 수밖에 없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기차역을 세우는 게 ‘준경’의 유일한 목표다.

‘준경’은 사연을 꼭꼭 눌러 쓴 편지를 청와대에 부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부탁하기 위해 대통령배 수학경시대회에 도전하는 4차원적인 발상과 열정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런 ‘준경’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채고 적극적으로 이끄는 친구 ‘라희’, 이 둘의 관계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허를 찌르는 엉뚱함으로 시종일관 유쾌한 웃음을 자아낸다.

보이스

2021년 9월,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 피싱을 소재로 한 리얼범죄액션 영화가 찾아온다.

이야기는 부산 건설현장 직원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면서 시작된다.

딸의 병원비부터 아파트 중도금까지, 보이스피싱 전화로 당일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같은 돈을 잃었다.

현장 작업반장인 전직형사 ‘서준’ (변요한)은 가족과 동료들의 돈 30억원을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 추적에 나선다.

‘서준’은 마침내 중국에 위치한 본거지 콜센터 잠입에 성공한다.

그는 개인정보 확보, 기획실 대본입고, 인출책 섭외, 환전소 작업, 대규모 콜센터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의 규모에 놀란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희망과 공포를 파고드는 목소리의 주인공이자 기획실 총책 광포로 (김무열)를 마주한다.

그는 마지막까지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게 조직화된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쫓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며 보이스피싱은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범죄 초창기 단순히 전화를 걸어 현금을 요구하던 이들은, 이제는 공권력을 완벽히 사칭하고 스마트폰 어플이나 SNS 메신저 등을 이용해 고도화된 작전을 펼

치고 있다.

피해자는 날로 늘어가지만 의문의 목소리 뒤에 숨은 가해자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들이 검거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돈은 전국, 전 세계에 흩어져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온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차별화된 범죄액션이 탄생했다.

피해자인 ‘서준’이 직접 보이스피싱의 세계로 뛰어들어 모든 것을 파헤치는 과정은 소름 돋는 공감과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

9월을 연 마블 영화 ‘상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석권하며 순항 중이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텐 링즈’의 힘으로 수세기 동안 어둠의 세상을 지배해온 ‘웬우’.

‘상치’는 아버지 ‘웬우’ 밑에서 암살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상치’는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습격으로 더 이상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어머니가 남긴 가족의 비밀과 내면의 신비한 힘을 일깨우게 된다. 벗어나고 싶은 과거이자 그 누구보다

두려운 아버지 ‘웬우’를 마주해야 하는 ‘상치’.

악이 될 것인가? 구원이 될 것인가? 마블의 새로운 시대, 세상에 없던 힘이 탄생한다.

애니메이션 3편

애니메이션 3편도 추석 연휴 동안 극장가 스크린에 함께 걸린다.

‘극장판 포켓몬스터 : 정글의 아이, 코코’는 포켓몬의 손에서 자라 자신이 포켓몬이라고 믿는 소년 ‘코코’가 처음 만나게 된 인간 소년 ‘지우’와 ‘피카츄’의 친구가 되면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작품이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코코 숲 속의 정글에서 호기심 가득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극장판 쟁구는 못말려 : 격돌! 낙서왕국과 열추 네 명의 용사들’은 낙서왕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용사로 선택된 쟁구가 ‘미라클 크레용’으로 탄생시킨 낙서 용사들과 함께 위험에 빠진 벽일마을과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다.

‘스피릿’은 야생마 ‘스피릿’과 호기심 많은 소녀 ‘릭키’의 특별한 모험과 우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위험에 빠진 ‘스피릿’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릭키’와 친구들은 환상적인 모험을 떠난다. /최명진기자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집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